

〈굿모닝 프레지던트〉 장진의 풍자치곤 지나치게 계몽적

제공·제작 CJ엔터테인먼트, 소란플레이먼트 | 감독 장진 | 출연 이순재, 고두심, 장동건 | 개봉 10월 22일

경박하고 저급한 장르로 폄하되던 코미디의 가치를 복권했다는 평판을 얻고 있는 장진은 '장진 식 유머'라는 말까지 만들어내며 그만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받고 있다. 새로운 작품을 내놓을 때마다 기대가 쏟아지는 그에게 남다른 유머 감각은 하나의 브랜드가 되지 오래다. 이를테면 일상적 개그 코드를 슬쩍 엮어가는, 정형의 탈피나 우회적 방식으로 문제를 비튼 독설이 그것인데, 형식에 구애 받지 않는 유희 정신은 장진 식 유머의 개성으로 곧잘 거론된다. 흥미롭기로 말하면 정석화된 코미디보다 이쪽이 훨씬 취향에 맞는다고 할 수 있다.

신작 〈굿모닝 프레지던트〉에서 이러한 장진의 유머는 날이 무더진다. 대통령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코미디를 장진이 했을 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신랄함이 잘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어리석은 세상에 대한 만화경적인 관찰이나 아둔한 사람에 대한 조롱을 통해 통념을 전복하는 장진 식 쓴 웃음에 익숙한 관객의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쯤 되면 "대중의 눈높이를 겨냥한 철저한 상업영화"라는 그의 말이 괜한 연막이 아닐 수 있겠다는 심증이 든다.

하지만 통렬한 웃음과 카타르시스보다 이상주의적 지도자에 대한 열망이 전면을 채우는 이 영화의 발상은 어딘지 순진해 보인다. 벼락맞듯이 복권에 당첨된 노(老) 대통령, 절실하게 장기 기증을 원하는 단 한 사람을 위해 특이 체질 신장을 기꺼이 내놓는 미남 대통령, 소원했던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가로서 자존을 포기한 여 대통령까지, 〈굿모닝 프레지던트〉는 공인으로서의 책무보다 훈훈한 인간미를 갖춘 사적인 지도자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다. 보스의 제왕적 지도자가 아니라 사려 깊은 인격자의 모습이다. 영화의 구성은 단순하다. 연령과 성별이 다른 세 대통령의 삽화가 연결되는데, 그들이 처한 정치적, 개인사적 곤경이 파격적인 결단을 통해 해소되는 과

■ SYNOPSIS

임기 말년의 대통령 김정호(이순재)는 무심코 응모한 로또가 1등에 당첨, 244억원 대박의 주인공이 되지만 "당첨되면 국민을 위해 쓰겠다"던 자신의 약속 때문에 속앓이를 한다. 김정호의 뒤를 이은 꽃미남대통령 차지욱(장동건)은 솔직하고 강경한 외교 스타일을 가졌지만 어린 시절부터 짝사랑하던 이연(한채영)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소심함을 보인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 한경자(고두심). 하지만 청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서민 남편 장면(임하룡)의 대책없는 내조로 이혼 위기에 처했다.



정을 보여주고 있다. 〈굿모닝 프레지던트〉에는 전, 현직 대통령들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슬쩍 보기만 해도 알 만한 사건들의 한 줄이 아닌데, 현실 속에서 그 함의가 적지 않았던 이 사건들이 화제의 환기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도 아쉬움이다. 물론 거대한 나랏일 만큼이나 고통받는 한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이 중요하다는 착한 교훈을 설파하는 영화에서 거대담론의 쓰임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보편의 윤리나 덕목을 교육하는 데 어울릴법한 에피소드들을 엮어내기 위해 그렇게 다채로운 재료들이 필요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무엇보다 저선한 의지의 화신들이 구태여 대통령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굿모닝 프레지던트〉는 훌륭한 대통령상이 아니라 훌륭한 인간상을 제시한다. 보여주기 위한 쇼로 전략한 저열한 정치의 메커니즘, 북한을 사이에 둔 일본, 미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긴장, 권력형 비리의 그림자까지 가법지

않은 문제들을 건드리지만, 모든 게 구실일 뿐이다. 이상적 지도자의 윤리가 미궁에 빠진 지 오래요, 현실 정치가 놓인 곤궁함이 슬한 뒷말을 넣고 있는 마당에 이상적이기 만한 대통령상을 묘사한 선택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애석하게도 영화가 묘사하는 지도자의 면면은 당면한 우리 현실과 너무 먼 것이 아닌가?

장진이 총애하는 배우들의 활약은 여전히 눈길을 끈다. 임하룡, 장영남, 류승룡, 정규수, 주진모까지 장진 사단의 충직한 배우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제 역할을 다한다.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희귀한 우리의 풍토에서 〈굿모닝 프레지던트〉는 재미와 의미를 황금 비율로 배분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떤 코미디 작가도 접근하려 하지 않았던 소재에 의욕적으로 다가간 이 영화가 신선한 재료를 잘 요리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기상천외한 도발이나 폐부를 찌르는 고담준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진의 풍자치곤 지나치게 계몽적이다.

장병원(영화평론가)

CREDITS

staff

제공·배급 CJ엔터테인먼트
공동제작 베넥스영화전문 투자조합 컴퍼니케이파트너스콘텐츠전문투자조합 그린순해보험 mvp창투문 화산업투자조합 소빅창업투자 CJ창업투자 이수창업투자 골드레인인베스트먼트 제일저축은행 기획 필름잇수다 제작 소란플레이먼트 공동제작 KJ엔터테인먼트 제작투자 김정은아 공동투자 서범석 김학범 남기문 박현태 신강영 채운 하정원 이용준 투자총괄 최준환 투자책임 이상용 각본 장진 감독 장진 프로듀서 김미화 촬영 최상호 조명 이만규(라이팅뉴스) 프로덕션 디자인 이나 김효신 동시녹음 임형근 편집 김상범 김재범(김상범편집실) 음악 한재권(Moon Studio) 사운드 슈퍼바이저 최태영(LIVE TONE) CG 김태훈(NEXT) 현상 SDL(Sebang Digital Lab) DI 이은송(스타이스트 디지털 랩) 캐스팅디렉터 정영범(FCG a.k.a. star J) 제작 프로듀서 조현석 조감독 김수미 김성진 제작부장 이지은 김지훈 제작팀 허성진 박형철 김정환 노태훈 제작지원 박아형 김용선 이강진 최성일 진일규 한상구 이원희 오은석 박준열 유희석 안평욱 안평윤 서동기 장준현 김현송 조영 우상백 김의현 한민진 최영두 한동석 제작회계관리 이지근 박하나(소란플레이먼트) 투자진행 이한승 연동은 최윤호 이승주 프로덕션 슈퍼바이저 이성준 스크립터 김보희 연출팀 김준모 김대욱 촬영팀 차태곤 이주훈 이충진 조왕섭 Key Grip 최용재 조명팀 김재범 이은기 권준형 정덕희 불오퍼레이터 김용구 조한기 미술팀장 엄미선 무대 마당 윤기찬 소품팀장 유정은 의상실장 김희주 분장실장 이서진 특수효과 전건익(ACE EFFECT) 무술감독 고훈웅

cast

김정호 이순재
차지욱 장동건
한경자 고두심
최창면 임하룡
김이연 한채영
의원2 이한위
퀵서비스 직원 공형진
북한 밀사 류승룡
청년 박해일
미미 정유미
장기수 이문수
경호실장 주진모
경호차장 김광현



〈파주〉 무리하게 답을 내려다 길마저 잃어버린

제공·제작_명필름, TPS Company | 감독_박찬욱 | 출연_이선균, 서우 | 개봉_10월 28일

이건 어리석음에 관한 영화일까? 적어도 홍보용 문구에 쓰인, 형부와 처제의 금지된 사랑에 대한 영화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금기를 넘어서 말 것 인가를 둘러싼, 아스라한 긴장과 떨림에 관한 영화는 아니다. 그보다는 처제와 형부라는, 가깝지만 가족은 아닌 두 사람을 둘러싼 가혹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파주〉는 피할 수 없었던 잘못, 의도치 않았던 죄, 그릇된 결정 때문에 곁돌고 스쳐 지나가야만 했던 남편의 여정을 모호하게 그려낸다.

〈파주〉는 2003년의 현재에서 출발한다. 은모는 대학 등록금을 가지고 인도 여행을 떠났다 몇 년 만에 돌아왔다. 파주는 한창 재개발이 진행 중이고, 형부인 중식이 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언니의 죽음에 의혹을 갖고 있는 은모는 형부가 포기한 사망보험금이 자신에게 넘겨졌음을 알게 된다. 은모는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영화는 과거와 현재를 반복해서 보여준다. 중식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습듯이 파주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은모와 언니가 어떻게 살고 있다가 중식을 만나게 되었는지, 언니의 죽음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언니가 죽은 후 갈 곳이 없어진 은모가 중식과 함께 살게 되는 과정 등.

전작 〈질투는 나의 힘〉에서도 보여주었던 듯이, 〈파주〉에서도 박찬욱이 그려내는 무기력한 남자는 무척이나 인상적이다. 중식은 수많은 것에 얽매어 있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한다. 선배를 짝사랑했지만, 하필이면 정사 중에 그녀의 딸이 다치는 바람에 죄의식에 사로잡힌다. 아마 운동을 시작한 것도, 아니 열정적으로 매달린 것도 그녀 때문이 아닐까. 그의 내적인 동인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녀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는 운동을 하고, 그녀들과 같이 살고, 철거대책위원장이 된다. 그의 무기력함은, 요동치며 좌충우돌하는 은모의 삶과 대비된다. 은모는 혼돈의 순간을 늘 돌파해간다. 그것

■ SYNOPSIS

은모(서우)는 자신이 돈을 벌어오겠다고 가출한 사이 언니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유일한 가족으로 형부 중식(이선균)과 같이 살아가고 있던 은모는 어느 날 자신이 중식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에 인도로 떠난다. 3년의 시간이 흐르고 고향 파주로 돌아온 은모는 언니의 사고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과 중식이 자신 앞으로 보험금을 남겨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변함없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식을 본다. 은모는 그를 향해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그리고 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사건에 매달린다.



이 얼마나 유치하고, 단선적인 선택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중식과 만난 이후, 그녀의 모든 행동이 결국 은중식을 잃어버린다는 점이다. 〈파주〉의 매력적인 점은 중식과 은모의 근원적인 관계다. 어떻게 포장을 하건, 중식은 그녀가 휘두른 칼에 맞아 무고하게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중식은 구원이자 사랑이라 합리화한다.

파주를 뒤덮은 안개처럼, 박찬욱이 은모와 중식을 그려내는 시선은 모호하다.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하나의 장면들은 꽤 눈길을 끌지만, 안타깝게도 감독의 의식 속에서만 생생한 인물들로 그려버린다. 〈질투는 나의 힘〉에서는 구체적인 권력의 자장이 존재하면서 남자의 캐릭터가 설득력을 얻었지만 〈파주〉에서는 실체를 잃어버린다. 〈파주〉에는 이야기를 끌어가는 동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언니의 죽음과 중식의 본심을 캐내고 싶어 하는 은모의 행동들이 그나마 유력하다. 하지만 그 미스터리한 상식 이하다. 언니가 죽고 한참을 같이 살았건만, 왜 은모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일까? 은모가 가출

한 사이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전후 사정조차 듣지 못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

〈파주〉는 중식이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은모가 떠나가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하지만 이 대단원은, 이전의 이야기들과 아귀가 맞지 않는다. 그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초래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을 떠올린 것이 아닐까? 사랑했기 때문에 언니와 결혼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언니를 죽이게 되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고발하고 용서하고 등의 변명을 만든 것이다. 그것만이 모든 비밀의 문을 열 수 있는 만능열쇠니까. 하지만 무리하게 답을 내지 않는 게 더 좋았을 것이다. 질투에는 이유와 대상이 존재하지만, 파주의 안개에는 아무런 근원도 목적도 존재하지 않는다. 〈파주〉는 무위의 대상에 무리하게 답을 내려고 안달하다가 안개조차 사라져버리고 초라하게 막을 내린다. 정말 안타깝다.

김봉석(영화평론가)

CREDITS

staff

제공_명필름 배급_위너 브러더스 제작지원_영화진흥위원회 제작_TPS Company 제작투자_심재명 제작_김주경 촬영_김우형 조영 김승규 미술_김준 음악_장영규 분장_황현규 의상_김희주 편집_김형주 특수시각효과_장성호 사운드_김석원 박주강 등시녹음_정근 각본_박찬욱 감독_박찬욱 조감독_신민재 제작실장_김창수 부제작투자_최운진 제작팀장_박경원 제작진행_조영재 정명택 허성일 현장진행_나상연 회계책임_임효근 제작회계_강미선 현장회계_안수연 제작지원_박은성 김경교 연출팀_유혜민 이상현 주재형 스크립터_이유림 붐 오퍼레이터_송지민 미술팀장_최연식 세트_김보관 의상팀장_최수진 분장팀장_황소라 특수분장_곽태용 황효균 Key Grip_정훈 특수효과_정도안 무술감독_홍의정 작곡_장영규 Work Planner_최순호 DI_이용기 마케팅 책임_김미정 배급 책임_김상현 마케팅 대행_김주희 권해민 이현진 조현정 마케팅 지원_박보나 조선 홍보 사진_홍석창 메이킹필름_박윤경 소준문 원하나 조영윤 포스터사진_오형근 광고 디자인_김상만 온라인마케팅 대행_장요숙 조수정 강연정 송지혜 광고매체대행_김태준 박진선 해외 마케팅 책임_최우현 Paul Yi 배급 진행_박종현 임효근 해외배급 책임_손민경 해외배급 진행_김지연 추소연 김은정 촬영장비_프루컴 조명장비_라이트비 그림장비_무브먼트 슈팅레카 코리아그림 현대컬렉션 무술_BEST Stunt Team 세트시공_아트서비스 미술센터 실내세트_파주아트서비스 특수분장_CELI 특수효과_대물리션 편집_모네프 특수시각효과_모팩 스튜디오 사운드_BLUECAP 광학녹음_리드 사운드 네가편집_이수연 편집실

cast

중식_이선균 은모_서우 은수_심이영 미애_김예리 심복_손강국 보스_이경영 자영_김보경 목사_이대연 미애부_우현 흥_아저씨_이봉규